

| 권두언 |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모두의 책임이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무엇보다 심각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대응행동은 턱없이 부족한 위험이 있다.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현재 기후위기를 방지할 경우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기후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기후환경운동단체와 과학기술계는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UN 등 국제사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여왔다. 유엔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여 파리협정에서 천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천명하였다. 2019년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린 데 이어, 2021년 11월 초 산업혁명의 본고장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다.

종래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 비중이 1.51%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불렸을까?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0월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5월



장홍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결하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11월 글래스고우 COP26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겨냥한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수많은 논의를 거친 고심어린 결정이라는 정부측 설명을 무색하게, 탈탄소 시나리오의 적절성, 목표의 현실성과 달성가능성, 원자력 발전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하다. 정작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일자리, 나아가 삶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기후 문제가 환경이나 경제,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쟁점이거늘, 이와 관련한 담론은 미약하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이유이다. 지난 7월 경사노위에서 ‘기후위기와 산업·노동전환연구회’를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터하여 이번 호 사회적 대화 특별 대담은 ‘기후변화와 공정한 대화’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기후위기 공론장의 최전선에 서있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인, 김현우 위원, 조은별 연구원, 한빛나라 소장, 정보영 연구원을 모시고 기후위기의 실상, 공정한 전환의 개념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안을 짚어보았다. 산업별 차등적인 영향에 대한 세심한 배려,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산업전환의 직접 당사자 뿐 아니라 하청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주민, 나아가 노동시장에 진출할 청년들도 공정한 전환을 위한 논의의 이해

당사자로 고려되어야 하며, ‘완벽한 솔직함’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논단은 ‘고령사회와 고용’을 주제로 한 논문들로 구성하였다. 유규창 교수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야 실질적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상민 교수는 고용연장을 통한 중고령층의 고용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중고령층 고용확대와 임금조정을 위한 방안을 직무급제에서 찾는다. 세대갈등 프레임에 대한 조은주 위원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만하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코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좌담으로 진행되었다. 그간의 성과는 계승하고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성찰해야 할 할 쟁점들을 꼼꼼하게 짚었다. 일독을 권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사회적 대화는 한 걸음씩 전진한다. 상강(霜降)이 지나면서 날씨가 차다.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옷소매를 스친다. 직간접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노사정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그간 뿌린 땀과 노력의 소중한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